

2015 개정 종교학 교육과정과 가톨릭 중등학교의 종교교육*

조 영 관

가톨릭대학교

〈요 약〉

본 논문은 한국 가톨릭 학교가 추구하는 종교교육의 관점에서 ‘2015 종교학 개정 교육과정’에 대한 비판적 문제제기와 그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가톨릭 학교는 가톨릭교회의 교육기관으로서 그리스도의 복음 정신에 기초한 ‘교육을 통한 복음화’와 ‘전인적인 인간 형성’이라는 분명한 교육 이념과 교육적 사명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본질적인 교육 사명은 학교에서의 종교교육을 통해 가장 잘 실현될 수 있다고 믿고 있다. 한국의 가톨릭 중등학교들은 가톨릭적인 종교교육을 통해 그리스도교의 복음 정신에 기초하여 학생들의 영적 발달, 도덕성·인성 발달, 종교심 함양, 생명 존중, 타종교에 대한 개방성과 존중감 등 많은 긍정적인 교육적 결과들을 만들어 오고 있다. 또한 가톨릭 중등학교들은 “신앙은 강요를 용인하지 않는다.”는 교회의 가르침에 근거하여 타종교를 믿는 학생들을 최대한 배려하고 있다. 그런데 ‘2015 종교학 개정 교육과정’은 다종교 상황에서의 타종교에 대한 배려와 종교교육의 공공성을 이유로, 가톨릭 학교들이 추구하는 종교교육의 특수성과 고유성을 외면하면서, 종교 일반에 대한 학문적 접근인 ‘종교학’만을 종교교육에서 가르치도록 강제하고 있다. 이러한 ‘2015 종교학 개정 교육과정’에 대해 본 논문은 세 가지 측면에서 질문을 던지면서, 그 질문들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그 질문들은 다음과 같다: 1) 왜 종립학교의 종교 교과명이 ‘종교학’이어야 하는가?, 2) 왜 ‘종교학’으로 성격을 규정한 종교 과목에 복수 과목 편성을 요구하는가?, 3) 개정 교육과정은 학생들의 흥미와 수준을 고려하고 있는가? 결론에서 본 논문은 ‘2015 종교학 개정 교육과정’과 교육 당국이 지향하는 종교학으로서의 종교교육이 종립학교가 아니라 공립학교에서 이루어져야 할 접근 방식이고 그 교육적인 성과도 매우 제한적일 것이라는 점

* 이 글은 2016학년도 가톨릭대학교 ‘성신교정 교비연구비’의 지원을 받아 연구·작성된 논문임. 또한 본 연구는 2016년도 한국종교교육학회 춘계학술대회(2016년 5월 20일, 가톨릭대학교)에서 발표한 원고를 수정·보완한 것임.

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이어서 학생들이 가지는 신앙의 자유를 보장하는 길을 계속해서 모색하는 가운데, 각 종립학교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교육 이념과 교육적 사명을 존중하면서 학생들의 영적 발달, 종교심 함양, 도덕성·인성 발달, 생명 존중, 타종교에 대한 개방성과 존중감 등의 보편적인 교육 가치를 구현하는 다양한 방식의 종교교육의 길을 제시하는 것이 지금 이 시대의 교육정신이라는 점과 교육 당국이 추진해야 할 교육 방향임을 제언하였다.

핵심주제어: 2015 개정 종교학 교육과정, 가톨릭 학교의 종교교육, 가톨릭 학교의 교육이념과 사명, 종교교육의 다양한 접근 방식, 종교교육의 목적(목표)

I. 서론

현재 우리는 다문화·다종교적인 세계화된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다양한 교통수단의 발달, 매스미디어 및 통신수단의 발달, 그리고 손쉬워진 타국으로의 이주 등으로 우리는 보다 가까워서 더 다양한 나라 사람들을 만나고, 다양한 문화와 다양한 종교들을 접하며 살아가게 되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 속에서 다양한 문화와 종교가 서로 간의 갈등을 피하고 평화로이 공존하면서 시민 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서는 서로 다른 종교와 문화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서로에 대한 이해, 다름에 대한 개방적인 자세와 존중, 그리고 상호간의 대화가 절실히 요청되어진다. 2015 개정 종교학 교육과정(이하 개정 교육과정)은 이러한 시대적·사회적 상황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종교학’으로서의 종교교육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다. 즉, 개정 교육과정은 “다종교·다문화 사회에서 종교에 관한 성찰적 안목과 태도를 기르는 데에 주안점을 두고, 종교 문화 이해력, 비판적 성찰 능력, 의사소통 능력, 다문화 감수성, 윤리적·사회적 실천 능력 등의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¹⁾ 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하지만 종교교육은 단지 다문화·다종교 상황 속에서 서로 공존해서 살아가기 위해서만 필요한 과목이 아니다. 종교교육은 인간이 본래 영적 본성과 초월적 특성을 지닌 종교적인 존재라는 사실에서 출발해서 학생들이 지닌 영적 본성을 일깨우고 키워주며, 위대한 종교들로부터 영적 지혜를 얻도록 하여 보다 풍요로운 전인적인 인격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과목이다. 또 다른 한편에서는 종교적 이념과 목적에 따라 설립된 학교들에서 그 종교적 이념과 목적을 받아들이는 학생들에게 종교적 신념을 강화하고 그 종교적 가치에 따라 사회에 기여하는 삶을 살아가갈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과목이다. 그래서 종교교육은 일반적으로 그 교육 주체 및 대상, 그리고 교육 목적에 따라 종교계 사립학교(이하 종립학교)에서 같은 종교를 가진 학생들과 그 종교에 대해 거부감을 갖지 않는

1) 교육부,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교육부 고시 제2015-74호[별책 19], 2015. 9.), 58쪽.

학생들을 대상으로 선교와 신앙 강화를 목적으로 특정 종교의 신앙 진리와 전통을 가르치는 ‘종파교육’(education of religion), 일부 종립학교 혹은 일반 공·사립학교에서 학생 내면의 종교적 성향에 관심을 가지면서 특정 종교에 한정하지 않고 여러 종교들이 제시하는 신앙의 진리로부터 영적 지혜를 가르치는 ‘종교적 교육’(religious education), 주로 공립학교에서 종교에 상관없이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종교에 대한 학문적 접근으로서 객관적으로 종교 일반에 대해 가르치는 ‘종교학’ 혹은 ‘종교에 관한 교육’(education about religion) 등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되고 있다.

그런데 개정 교육과정은, 우리나라에서 종교교육이 실질적으로 종립학교에서만 실시되고 있음을 잘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종교교육이 갖는 보다 본질적인 교육 목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종교·다문화 사회에서 종교에 관한 성찰적 안목과 태도를 기르고자 하는 한 가지 목적에 초점을 맞추면서 공립학교에서 실시되어야 할 종교에 관한 교육인 ‘종교학’을 종립학교에서의 종교교육으로 강제하고자 하고 있다. 이러한 교육 당국의 정책 이면에는 종립학교의 종교교육에 대한 아래와 같은 상당한 불신과 편견이 자리하고 있는 것 같다.

현재까지 중등 종립학교 내 종교교육은 특정 종교 위주로 진행되고 있으며, 특정 신앙인을 양성하려는 목적을 잠재적으로 지니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 이 때문에 사회 일각에서는 종교교육을 일종의 세뇌교육으로까지 인식하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오늘날 종교 간의 갈등현상은 학교 내 종교교육의 역사적 축적물이기도 하다. 만약 학교 내 종교교육의 현 상태가 지속된다면, 현재와 미래의 한국 종교문화에는 타자에 대한 관용의 자세가 더욱 악화될 수도 있을 것이다.²⁾

이러한 견해는 일부 종립학교들의 경우에는 해당할지 몰라도 모든 종립학교에 해당하는 것으로 일반화해서는 안 될 문제이다. 본 연구자의 가톨릭 중등학교에서 6년간의 종교 교사로서의 경험과 가톨릭 학교교육에 대한 그동안의 연구 결과에 비추어 볼 때, 타종교에서 설립한 종립학교들에 대해서는 알 수 없지만, 한국의 가톨릭 중등학교들의 경우에는 ‘종교교육이 특정 종교 위주로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 외에는 위에서 지적한 내용들이 전혀 해당하지 않는다. 뒤에서 좀 더 자세히 밝히겠지만, 한국의 가톨릭 중등학교들은 종교교육을 통해 그리스도교의 진리를 가르치지만 타종교 학생들을 개종시키거나 비신자 학생들을 신자로 만들기 위한 온전한 의미의 ‘종파교육’을 하고 있지 않다. 또한 타종교를 믿고 있거나 종교를 갖고 있지 않는 학생들의 신앙의 자유를 최대한 존중하고 있고, 종교수업을 통해 다종교적인 사회 상황 안에서 타종교에 대한 개방성과 종교 간의 대화를 강조하고 있다.

2) 강돈구·윤용복·조현범·고병철, 『종교교육의 현황과 개선방안』, (문화관광부&한국학중앙연구원, 2005), 121쪽.

본 논문은 한국 가톨릭 학교가 추구하는 종교교육의 관점에서 ‘2015 종교학 개정 교육과정’에 대한 비판적 문제제기와 그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먼저 가톨릭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톨릭 학교의 종교교육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요약하여 밝히고, 이어서 「한국 가톨릭 학교교육 지침서」(2009)에서 권고하는 종교교육에 관한 사항과 이번 연구를 위해 가톨릭 고등학교 종교교사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현재 한국 가톨릭 중등학교에서 어떻게 종교교육이 실시되고 있는지를 제시하고자 한다. 그리고 나서, 가톨릭이 바라보는 종교교육의 관점에서 개정 교육과정에 대한 비판적 문제제기와 그 대안적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Ⅱ. 가톨릭 학교 종교교육에 대한 가톨릭교회의 관점

가톨릭 학교는 다른 공·사립학교들과 마찬가지로 학생들의 학업신장과 지적 능력 개발, 문화유산 전수, 그리고 전인적 성장 추구를 가장 중요한 교육적 사명으로 인식하고 있다. 하지만 가톨릭 학교는 일반 학교로서 갖는 특성과 함께, 가톨릭교회에서 설립·운영하는 학교로서 ‘복음화’라는 또 하나의 고유한 교육 이념과 사명을 가지고 있다. 가톨릭 학교는 가톨릭교회 문헌들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근본이 되는 가톨릭교회의 정체성과 가치들을 실현하는 가톨릭의 교육기관 중의 하나’로서 정의되고 있다.³⁾ 즉 학교를 가톨릭 학교로 만드는 것은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가톨릭적 가치들이라는 것이다. 가톨릭 학교가 가지는 이러한 교회적 차원은 “단순한 보조적 성격”이 아닌, “고유하고 특수한 본성”이며, “가톨릭 학교의 정체성을 이루는 근본 요소”가 된다.⁴⁾

이러한 가톨릭교회의 문헌들에 근거하여,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의 교육위원회는 『한국 가톨릭 학교교육 지침서』에서 가톨릭 학교가 되기 위해서는 가톨릭교회에 의해 공식적으로 ‘가톨릭 학교’로서 인정을 받아야 하고(제도적 조건), 학교의 교육 정책 및 모든 교육 활동이 가톨릭의 교육이념과 그리스도의 교육원리를 충실히 반영해야 하며(교육적 조건), 학교 곳곳에 가톨릭적 특성이 잘 드러나는 외형적 환경을 갖추고 학교 구성원들의 가치, 태도, 행위에서 가톨릭 이상이 실현되도록 해야 한다(문화적 조건)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⁵⁾ 가톨릭 학교가 가지는 이러한 “교회적 특성”이 가톨릭 학교가 종교교육을 실시하는 이유이며, 또한 종교교육의 성격과 교육 목표, 그리고 교육 내용과 방법을 결정하는

3) 참조: 교황청 가톨릭교육성, 「가톨릭 학교에 관한 지침」 『사목』제57호(서울: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1978), 33-37항.

4) 교황청 가톨릭교육성, 「제삼천년기의 문턱에 서 있는 가톨릭 학교」 『가톨릭교회의 가르침』제13호(2000), 11항.

5) 참조: 한국천주교주교회의의 교육위원회, 『한국 가톨릭 학교교육 지침서』(서울: 가톨릭문화원, 2009), 26-27쪽.

핵심적 잣대이다.

1. ‘복음화’의 핵심적 활동으로서 종교교육

가톨릭교회의 교육기관으로서 가톨릭 학교는 교회적 특성에서 비롯하는 몇 가지 고유한 특성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 첫 번째로 강조되는 것이 ‘복음화’의 책무이다. 여기서 말하는 ‘복음화’란 단순히 가톨릭교회가 복음을 선포하고 세례를 주어 신자를 만드는 것만이 아니라, “하느님의 말씀과 구원 계획에 상반되는 인간의 판단 기준, 가치관, 관심 사항, 사고방식, 영감의 원천, 생활양식 등에 복음의 힘으로 영향을 미쳐 그것들을 변화시키고 바로잡는 것”이란 의미도 포함하고 있다.⁶⁾ 학교가 가지는 복음화의 책무란, 따라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직접적인 선교 활동을 하는 것만이 아니라, 교육 안에서 그리스도교의 진리를 가르치고 그리스도교적 가치들을 표현하는 것도 포함한다. 그렇기 때문에 직접적인 선교를 목적으로 하지 않지만, 공식적으로 학생들에게 그리스도교의 진리와 가치를 전달할 수 있는 종교교육은 가톨릭 학교가 가지는 복음화 책무에 가장 핵심적인 활동이 된다.⁷⁾ 가톨릭교회는 복음화 사명에 부합하는 종교교육의 실시가 가톨릭 학교로서의 교육 이념과 정체성을 구현하는 길이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다.

2. 전인교육을 위한 필수적 요소로서 종교교육

모든 인간이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영적 본성’과 ‘초월적 특성’은 전인교육의 측면에서도 종교교육을 요청한다고 가톨릭교회는 말한다. 즉 모든 사람은 육적인 존재일 뿐만 아니라 하느님에 대한 타고난 자연스런 친밀감을 가지고 태어난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가톨릭 교육의 핵심 사명인 전인교육을 이루기 위해서는 지적, 도덕적, 신체적 차원만이 아니라 영적 차원도 결코 간과하거나 등한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⁸⁾ 그리고 이 전인교육은 가장 완전한 인간이셨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가르침을 바탕으로 하는 종교교육을 통해 가장 잘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본다. 또한 가톨릭교회는 종교교육을 “우리 이성의 영역을 넓혀 진리와 선이라는 더 큰 문제들에 문을 열게” 하고, “인성 교육 전체에 이바지하고 지식을 삶의 지혜로 바꿀 수 있게”⁹⁾ 한다는 측면에서 전인적인 인간형성을 위한 필수적 요소로서 바라보고 있다. 또한 종교교육을 통해 종교에 대한 지식적 이해를 넘어

6) 바오로 6세, 『현대의 복음 선교』(서울: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07), 19항.

7) 가톨릭 학교에서 비신자 학생들에게 가톨릭 교리를 가르쳐 가톨릭 신자로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직접적인 선교 활동은 일반적으로 방과 후 시간에 원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예비자 교리교육’을 통해 이루어지게 된다.

8) 교황청 가톨릭교육성, 『종교 교육과 학교 선택권에 관한 회람』(서울: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09), 1항.

9) 위의 책, 17항.

학생들에게 종교심과 종교적 관용, 영성적 풍요, 그리고 도덕적 감각을 효과적으로 키워 줄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¹⁰⁾

3. 종교교육을 선택할 부모·학생의 권리 강조

가톨릭교회는 부모를 “자녀의 첫째가는 교육자”로 인식하면서, 자녀 교육에 대한 일차적인 책임과 권리가 국가보다도 부모에게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의 임무는 보조성의 원리에 따라 부모와 교육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의무와 권리를 옹호하고 도움을 주며, 부모나 다른 집단의 노력이 부족할 때에 교육 활동을 수행하고, 공동선을 위해 학교와 교육 기관을 설립·운영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¹¹⁾ 국가에 앞서는 부모의 자녀 교육에 대한 이러한 일차적인 책임과 권리는 자녀 교육을 위해 자유로이 학교를 선택할 수 있는 ‘학교 선택권’ 뿐만 아니라 종교교육 문제에 있어서도 부모가 ‘자신의 종교적 신념에 따라서 자기 자녀들에게 전수할 종교교육 방침을 결정할 권리’까지도 포함한다. 따라서 가톨릭 신자 부모는 학교에서 “그들의 자녀가 도덕 교육과 종교교육을 받고 그리스도인 교육을 일반 교육 과정과 더불어 조화롭게 받아 나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마련해 주고 또 요구하여야”¹²⁾ 하며, 국가나 학교가 “부모의 종교적 신념과 일치하지 않는 학교 수업에 자녀들이 참석하도록 강요한다든가 종교교육을 완전히 도외시킨 획일적인 교육 제도만을 강요한다면, 이는 부모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된다.¹³⁾

4. 종교교육의 상대주의적 접근에 대한 분명한 반대 입장

가톨릭교회는 다양한 종교 간의 대화를 존중하고 격려하고 있다. 왜냐하면 서로 다른 전통과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세계화로 서로 더욱 의존하게 되었기 때문이고, 모든 문화는 인간 본성에 뿌리를 두고 있기에 “잠재적인 보편성”을 가지고 있고 그 잠재적인 보편성이 문화 간 대화를 가능하게 하는 것처럼 “문화의 초월적 영역”이자 “문화의 영혼”이라 할 수 있는 종교와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¹⁴⁾ 그렇지만 가톨릭교회는 종교다원주의 사회 속에서 대화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도 동시에 어떻게 다양한 문화가 가져다주는 풍요를 즐기면서도 개개의 문화가 가지고 있는 고유성과 정체성을 지킬 수 있는

10) 참조: 한국천주교주교회의 교육위원회, 앞의 책, 30쪽.

11) 참조: 제2차 바티칸 공의회, 「그리스도인 교육에 관한 선언」,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문헌』(개정판)(서울: 한국천주교주교회의, 2013), 3항.

12) 교황청 가톨릭교육성, 『종교 교육과 학교 선택권에 관한 회람』, 4항.

13) 교황청 가톨릭교육성, 『가톨릭 학교의 문화 간 대화 교육: 사랑의 문명을 위한 조화로운 삶』(서울: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13), 73항.

14) 위의 책, 7항. 33항.

냐에 관심을 기울인다. 이와 관련하여 가톨릭교회는 분명한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데, 그것은 다양한 종교 간의 대화가 결코 타협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즉, 종교 간의 “참다운 대화가 이루어지려면, 그것이 명확하여야 하며 상대주의와 혼합주의를 피해야 하고, 동시에 서로에 대한 진심 어린 존중과, 화해와 형제애의 정신이 드러나야” 한다는 것이다.¹⁵⁾ 여기서 말하는 대화의 명확성이란 그리스도교 고유의 정체성에 대한 충실함을 말하는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길ियो, 진리요, 생명”(요한 14, 6)으로 고백하는 가운데 타종교에 대해 존중하고, 경청하고, 협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문화를 단순히 나란히 놓고 근본적으로 동등하고 호환이 되는 것으로 바라보는” 종교 상대주의와 혼합주의는 종교 간 대화를 촉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대화의 가능성을 막아버리는 것이 된다. 왜냐하면 참다운 대화는 자신의 존재 인식과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가운데, 공통된 인간성을 바탕으로 타인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가능해지기 때문이다.¹⁶⁾ 이러한 관점에서 가톨릭교회는 가톨릭 학교에서 종교교육이 종교학으로 가르쳐지는 것을 분명히 반대하는데, 그 이유는 “종교교육이 여러 종교를 ‘중립적으로’ 비교하며 소개하는 것으로 그친다면 혼돈을 야기하거나 종교 상대주의나 무차별주의로 이끌 수 있다”는 점 때문이다.¹⁷⁾

5. 타 종교를 가지고 있는 학생들에 대한 존중과 배려

가톨릭교회는 모든 인간이 동등하게 가지는 종교 자유의 권리를 인정하면서 가톨릭 학교 안에서 그리고 종교교육을 행하게 될 때에 다른 종교를 믿는 학생들을 배려하고 그들의 종교를 존중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교황청 가톨릭교육성은 『학교 내의 가톨릭 평신도: 신앙의 증인들』(1982)에서 가톨릭 교육자가 타종교를 믿는 학생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때로는 가톨릭계 학교들 안에도 가톨릭적 신앙을 고백하지 않거나 혹은 전혀 종교적 신앙이 없는 학생들이 있다. 신앙은 강요를 용인하지 않는다. 신앙은 자기를 계시하시는 하느님께 대한 인간의 자유로운 응답이다. 가톨릭 교육자들은 그러므로 자기 자신의 종교적 확신과 일치하고 학교의 정체성과 부합하는 교리를 가르치고자 하는 한편, 가톨릭 신자가 아닌 학생들도 동시에 최대한으로 존중해야 한다.¹⁸⁾

15) 위의 책, 15항.

16) 참조: 위의 책, 21-23항.

17) 위의 책, 75항.

18) 교황청 가톨릭교육성, 「학교 내의 가톨릭 평신도: 신앙의 증인들」 『사목』제88-90호(서울: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1983), 42항.

또한 학교를 “문화 간 대화를 위한 탁월한 장소”로 이해하고 있는 가톨릭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중심을 두고 있는 가톨릭 학교가 ‘복음화’의 장소이면서 동시에 “다른 종교와 사회 배경을 가진 청소년들 간에 삶의 대화를 촉진하는 장소”가 되어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하고 있다.¹⁹⁾ 그런데 다른 종교적 배경을 가진 학생들과 삶의 대화를 촉진해 나가기 위해서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가운데, 진리의 보편성에 근거하여 서로 경청하고 우정을 나눌 때에 가능하게 될 것이다.

Ⅲ. 한국 가톨릭 중등학교의 종교교육 실태

본 장에서는 한국의 가톨릭 중등학교에서 종교교육이 어떻게 실시되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한국의 가톨릭 중등학교에서 종교교육을 어떻게 실시해야 하는지 그 기본적인 지침을 밝히고 있는 『한국 가톨릭 학교교육 지침서』의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여 제시하고, 가톨릭 고등학교 종교교사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가운데에서 본 연구를 위해 조사에 포함한 항목의 내용을 뽑아 그 결과를 제시하고자 한다.

1. 가톨릭 학교에서의 종교교육에 대한 한국 가톨릭교회의 기본 지침

한국 가톨릭교회는 가톨릭 중등학교 교육현장에서 종교 교육과정이 어떠한 성격을 가지고 어떻게 운영해야 하는지 그 일반적인 지침을 『한국 가톨릭 학교교육 지침서』에서 밝히고 있는데, 주요 내용을 요약하여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²⁰⁾

1) 그리스도교의 가치관 교육

종교교육은 그리스도교의 가치들을 내면화해야 한다. 그리스도교의 가치들이란 타인의 인격과 문화 존중, 생명 존중, 자연환경 보존, 평화와 정의 추구, 양심적 책임감 형성, 진정한 진리 추구, 평화로운 비판정신 형성, 세계평화를 위한 연대, 타인에 대한 봉사정신 형성 등이다.

2) 개인에 맞는 종교교육과 타종교 이해

종교교육은 학생의 배경과 수준에 맞게 이루어져야 한다. 교조적인 강제와 주입을 절대

19) 교황청 가톨릭교육성, 『가톨릭 학교의 문화 간 대화 교육』, 6항. 17항.

20) 참조: 한국천주교주교회의 교육위원회, 46-47쪽. 51-53쪽.

지양하고, 다른 종교나 신앙에 대한 이해와 개방성을 유지한다. 종교교육은 다양한 내용과 방식으로 학생 자신의 삶을 깊이 있게 성찰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줄 수 있어야 한다.

3) 종교적 확신에 찬 종교교육

가톨릭 교육자들은 자신의 종교적 확신과 일치하고 학교의 정체성과 부합하는 종교교육을 하는 한편, 가톨릭 신자가 아닌 학생들도 복음을 접할 기회를 누리도록 적극적으로 인도해야 한다.

4) 학생들이 갖고 있는 다양한 교육 환경을 배려한 교육

종교교육은 학생의 교육 환경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실시될 때 효과를 낼 수 있다. 학생들을 둘러싸고 있는 각종 시험, 사교육, 세대 간 갈등, 가족 대화 부재, 육체적 심리적 폭력, 외모지상주의, 무분별한 미디어, 집단 따돌림, 취업 문제 등을 감안하는 교육 프로그램이 되어야 한다.

5) 종교과목 사수의 정책적 홍보

가톨릭 학교는 국민공통기본 교육과정에서 종교 과목을 명시적으로 편성하고 수업 시수가 확보되도록 정책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6) 학교의 전 교육적 행위와 환경 안에 스며있는 종교교육

종교교육은 학교의 교육과정에 편성되어 있는 종교 과목 시간에 한정되어서는 안 되며, 학교의 모든 교육적 행위와 환경 속에 스며들어 있어야 한다.

2. 한국 가톨릭 고등학교의 종교교육에 대한 설문 조사 결과

본 연구에서 논의하고 있는 주제와 관련하여 한국 가톨릭 고등학교에서 종교교육이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한국 가톨릭 학교 법인 연합회에 등록된 모든 가톨릭 고등학교(총 37개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는 2016년 3월 28일부터 4월 15일까지 진행되었으며, 설문조사 협조를 위한 전화 통화와 온라인을 통한 설문조사 방식으로 종교 수업을 담당하는 교사들에게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최종적으로 총 28개 가톨릭 고등학교에서 32명의 종교 교사가 온라인 설문조사에 참여하였고, 전체 학교 수 대비 설문 참여 비율은 75.7%였다.²¹⁾ 주요 설문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21) 본 설문조사는 가톨릭대학교 성신교정에서 ‘한국 가톨릭 중등학교에서의 종교교육’과 관련한 주제로 본 연구자로부터 석사 논문 지도를 받고 있는 김홍주 대학원생의 도움으로 진행되었다.

1) 종교교육을 위한 정규 교과시간 마련 여부 및 공식 과목명

종교교육을 위한 정규 교과시간(예: 종교, 철학, 인성)이 학교에 마련되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응답에 참여한 31명의 교사 모두 학교에서 정규 교과시간을 통해 종교교육을 진행하고 있다고 답하였다. 이것은 대학 입시의 부담 속에서도 입시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종교교육을 모든 가톨릭 고등학교에서 중요한 교육 활동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결과라고 여겨진다.

<표 1> 종교교육을 위한 정규 교과시간 마련 여부

항목	응답 수(N)	응답 율(%)
정규 종교 교과시간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0	0
정규 종교 교과시간이 마련되어 있다.	31	100.0
합계	31	100.0

그런데 종교교육이 정규 교과시간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었지만, 그 과목명은 매우 다양하였다. 교육 당국이 종교교육의 과목명으로 지정한 ‘종교학’으로 운영하는 학교는 2개교(5.1%), 종교교육을 위한 교과임을 드러내는 기존의 ‘종교’라는 과목명으로 운영하는 학교는 5개교(12.8%)였다. 가톨릭 고등학교가 가장 선호하는 과목명은 ‘철학’(18개교, 46.2%) 이었고, 그 다음으로는 최근에 일반교양 과목으로 인정받은 ‘생활과 인성’(6개교, 15.4%) 이었다. 그 외에도 ‘종교철학’, ‘종교와 철학’, ‘생활과 철학’, ‘인성’ 등의 과목명으로 종교교육이 실시되고 있었다.

이러한 설문 결과는 종교교과 운영에 대한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과 가톨릭 고등학교 현장 사이의 괴리를 잘 보여 준다. 즉 종립학교의 고유한 교육이념을 반영하지 않은 ‘종교학’이라는 교과명의 교육과정과 복수 교과 편성에 따르는 개별 학교의 현실적 부담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이 결과적으로 종립학교의 종교교육을 왜곡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설문 조사 결과는 아래 <표 2>와 같다.

<표 2> 종교교육을 위한 정규 교과 과목명

종교 교과의 과목명	응답 수(N)	응답 율(%)
종교학	2	5.1
종교	5	12.8
종교철학	1	2.6
종교와 철학	1	2.6
종교인성	1	2.6
철학	18	46.2

생활과 철학	3	7.7
인성	2	5.1
생활과 인성	6	15.4
합계	39 ²²⁾	100.0

2) 가톨릭 종교 교사들이 생각하는 종교교육의 목적에 있어서 중요도

종교교육이 추구하는 다양한 교육 목적들에 대해서 그 중요성을 어느 정도로 여기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 가톨릭 고등학교 종교 교사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종교 교육의 목적은 종교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삶의 궁극적인 의미를 이해’(M=4.81)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그 다음으로는 ‘개별 종교가 제시하는 윤리적 태도 성찰 및 전인적 인격 형성’과 ‘성숙한 그리스도적 인간 형성’(M=4.53)이었다. 반대로, 가장 낮은 중요도를 부여한

<표 3> 가톨릭 학교 종교 교사들이 생각하는 종교교육의 목적에 있어서 중요도

단위:명(%)

종교교육의 목적	평균	1	2	3	4	5	합계
종교에 대한 이해: 종교에 대한 폭넓고 균형 있는 지식 습득	4.41	·	·	4 (12.5)	11 (34.4)	17 (53.1)	32 (100.0)
종교의 자연관, 역사관 등을 중심으로 한 종교의 세계관 이해 및 정립	4.00	·	2 (6.3)	6 (18.8)	14 (43.6)	10 (31.3)	32 (100.0)
종교의 생성 및 변화, 문화유산 등을 바탕으로 한 종교 문화 이해	3.88	·	3 (9.4)	7 (21.9)	13 (40.6)	9 (28.1)	32 (100.0)
현대 사회와 종교의 연관성 이해	4.50	·	0 (0.0)	2 (6.3)	12 (37.5)	18 (56.2)	32 (100.0)
개별 종교가 제시하는 윤리적 태도 성찰 및 전인적인 인격 형성	4.53	·	1 (3.1)	3 (9.4)	6 (18.8)	22 (68.7)	32 (100.0)
다른 종교에 대한 포용력 증진 및 비합리적인 맹신 극복	4.50	·	0 (0.0)	2 (6.3)	12 (37.5)	18 (56.2)	32 (100.0)
삶의 궁극적인 의미 이해	4.81	·	0 (0.0)	0 (0.0)	6 (18.7)	26 (81.3)	32 (100.0)
가톨릭 종교교육을 통한 학생들의 신자화: 선교적 측면으로서의 종교교육	4.09	·	1 (3.1)	7 (21.9)	11 (34.4)	13 (40.6)	32 (100.0)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 교리교육적 측면으로서의 종교교육	4.06	·	1 (3.1)	7 (21.9)	13 (40.6)	11 (34.4)	32 (100.0)
성숙한 그리스도적 인간 형성	4.53	·	1 (3.1)	2 (6.3)	8 (25.0)	21 (65.6)	32 (100.0)

Note. 1=전혀 중요하지 않다. 2=별로 중요하지 않다. 3=보통이다. 4=다소 중요하다. 5=매우 중요하다. 최고 가능 점수 평균값 = 5.0

22) 응답 합계가 학교 수에 맞는 ‘28’이 아니라 ‘39’인 이유는 학교에 따라 1학년과 2학년 모두 종교 과목을 운영하면서, 과목명은 학년에 따라 다르게 정했기 때문이다.

4) 종교 수업 때에 타종교를 믿거나 종교가 없는 학생들에 대한 배려 여부

종교 수업을 진행할 때에 타종교를 가지고 있거나 종교가 없는 학생들을 배려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32명의 교사 중 미응답 1명, ‘배려하지 않고 있다’ 1명을 제외한 나머지 교사 모두는 타종교를 믿거나 종교가 없는 학생들을 배려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93.8%). 이러한 설문 결과는 가톨릭교회가 강조하고 있는, ‘종교교육에 있어서 타종교를 믿는 학생들에 대한 존중과 배려’가 잘 지켜지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으로, 가톨릭 고등학교의 종교 교사들이 종교교육을 통해 교육 당국이 지향하는 타종교에 대한 개방성과 존중을 잘 실행하고 있음을 추정하게 한다.

<표 5> 종교 수업 때에 타종교를 믿거나 종교가 없는 학생들에 대한 배려 여부

항목	응답 수(N)	응답 율(%)
배려하지 않고 있다	1	3.1
배려하고 있다	30	93.8
미응답	1	3.1
합계	32	100.0

5) 종교 수업에 대한 학생들의 만족 정도

종교 수업에 대해 학생들이 어느 정도 만족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22명(68.8%)의 교사들은 ‘신자 학생들만이 아니라 비신자와 타종교를 믿는 학생들 모두 대체로 만족스러워한다’고 응답하였고, ‘신자 학생들은 만족하고 비신자 및 타종교를 믿는 학생들은 불만족스러워한다’고 응답한 교사는 6명(18.8%), ‘신자 및 비신자 학생들은 만족해하고, 타종교를 믿는 학생들은 대체로 불만족스러워한다’는 응답은 1명(3.1%)에 불과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교사들이 주관적으로 느끼는 인식도로서, 학생들이 실제로 종교 수업에 대해 갖는 만족도와는 어느 정도 차이를 가질 것이라고 추정하게 된다. 하지만 이 설문 결과도 가톨릭 고등학교 종교교사들이 대체로 종파교육보다는 비신자 및 타종교를 가진 학생들까지도 포

<표 6> 종교 수업에 대한 학생들의 만족 정도

항목	응답 수(N)	응답 율(%)
신자, 비신자, 타종교 학생들 모두 대체로 만족스러워함	22	68.8
신자 학생들은 만족해하고, 비신자 및 타종교 학생들은 대체로 불만족스러워함	6	18.8
신자, 비신자 학생들은 만족해하고, 타종교 학생들은 대체로 불만족스러워함	1	3.1
학생들 모두 대체로 무관심함	1	3.1
무응답	2	6.3
합계	32	100.0

용할 수 있는 종교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는 사실과 가톨릭 학교의 종교교육이 타종교를 믿는 학생들에게 커다란 거부감으로 다가가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어느 정도 말해주고 있다.

Ⅳ. 2015 개정 종교학 교육과정에 대한 비판적 문제제기

최근 20여 년간의 종교 교과 교육과정의 변천사를 들여다보면 정부의 종교교육 정책이 종립학교의 고유한 교육 이념을 고려하기보다는 종교교육의 공공성을 보다 공고히 하는 쪽으로 변화하였음을 확인하게 된다. 그리고 2015 개정 종교학 교육과정 또한 이러한 흐름을 매우 잘 반영하고 있다.

개정 교육과정은 종립학교의 종교교육의 성격을 ‘종교학’으로 규정하면서, 그러한 성격에 맞는 교육 목표와 교육해야 할 세부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서론에서 밝힌 바와 같이 종교학으로서의 종교교육은 공립학교에서 실시해야 할 접근 방식이지, 종립학교가 추구해야 할 종교교육의 접근 방식이 결코 아니다. 그리고 이것은 가톨릭 학교의 경우는 더욱 그러하다. 여기서는 가톨릭교회가 제시하는 가톨릭 학교의 종교교육에 대한 관점에서 개정 교육과정에 대한 비판적인 문제제기와 함께 그 대안을 생각해 보고자 한다.

1. 왜 종립학교의 종교 교과명이 ‘종교학’이어야 하는가?

종교교육이 자유선택 과목의 하나로 중등학교 정규 교과목에 포함된 제4차 교육과정(1981) 이래로 종교교육을 위한 교과명은 ‘종교’에서 ‘생활과 종교’(제7차 개정, 2007)로, 다시 ‘종교학’(2011 교육과정)으로 변경이 이루어졌다.²³⁾ 2015 개정 교육과정도 종교교육에 대한 교과 명으로 ‘종교학’이란 이름을 부여하였는데, 이것은 종립학교가 추구하는 ‘종파교육’ 혹은 ‘종교적 교육’을 지양하고 ‘종교학’적 접근으로 종립학교의 종교교육의 성격과 목적을 규정하려는 교육 당국의 의도가 그대로 반영된 결과라고 여겨진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다종교 문화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청소년들은 올바른 종교관과 타 종교에 대한 개방성을 지니기 위해, 또 인간의 보편적 특성인 영적 본성(종교심)을 고양하기 위해 종교교육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종교교육은 종교를 가지고 있거나 그렇지 않거나 상관없이 모든 학생들에게, 종교계 학교에서 뿐만 아니라 공립학교 및 사립학교들에서도 교양 선택과목으로 채택될 필요가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종립학교를 포함한 공·사립 모든 학교들에서 종교교육이 ‘종교학’이란 이름으로 획일적으로 이

23) 참조: 김귀성·류성민·고시용, 『종교 교양교육 활성화 방안 연구』(문화체육관광부, 2012), 29쪽.

루어져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종교문화의 다원성을 인정하는 차원에서도 그렇고, 종립학교만이 아니라 각 학교들이 가지는 고유한 교육 철학과 교육 사명을 존중하는 차원에서도 종교교육은 각 학교가 추구하는 교육 이념에 맞게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 즉 종교교육에 있어서 종교학적 접근으로서의 단일한 방식이 아니라, 공립학교와 일반 사립학교에서는 학교의 교육 목적에 따라 ‘종교학’이나 ‘종교적 교육’을, 종립학교에서는 학교의 설립 이념에 따라, 학생들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종파교육’ 혹은 ‘종교적 교육’을 하게 하여 종교교육의 ‘다양성’을 추구하면서 그 다양성 안에서 ‘종교 일반에 대한 이해, 타종교에 대한 개방성과 존중’ 등과 같은 공통의 목표를 모색해 가도록 해야 할 것이다.

종교학으로서 종교교육이 갖는 가장 큰 단점 중의 하나는 모든 인간이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영적 본성에 대해 다루지 못하고 세계 종교들로부터 학생들이 얻을 수 있는 영적 지혜를 간과하고 있다는 점이다. 가톨릭의 입장에서, 종교교육의 목적은 본질적으로 종교에 대한 이해와 지식을 얻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내면의 종교심을 발견하고, 그 종교심을 성장시켜서 전인적인 인격을 형성하는데 있다. 전인적인 인격의 형성은 지적, 도덕적, 신체적 차원만이 아니라 영적 차원도 성장시켜 나갈 때 비로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영적 차원의 성장은 종교에 대한 지적 교육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종교로부터 영적 지혜를 제시하고 그 지혜를 성찰하도록 함으로써 이루어지게 된다.²⁴⁾

한편, 가톨릭교회는 국가가 가톨릭 학교에서 종교학으로서의 종교교육만을 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가톨릭 학교를 선택한 부모와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를 명백하게 침해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 즉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가톨릭교회의 학교 관련 문헌은 가톨릭 신자 부모가 자녀 교육을 위해 자유로이 가톨릭 학교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와 종교교육 문제에 있어서 자기 자녀에게 가톨릭적인 종교교육을 받도록 할 권리를 가진다는 점과 학생들이 가톨릭 학교에서 가톨릭적인 종교교육을 받지 못하도록 막는 것은 자녀 교육에 대한 가톨릭 신자 부모의 권리를 명백히 침해하는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물론, 고교 평준화 정책에 따라 학생들의 학교 선택권이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가톨릭 학교에 입학한 학생들의 종교의 자유, 즉 원하지 않는 종교교육을 받지 않을 권리와 자유를 존중해야 하지만, 그 문제는 종교교육을 원하지 않는 학생들을 그 교육에서 열외 시키고 대체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풀어야지 종교학을 가르침으로써 가톨릭 종교교육을 받고자 하는 학생들의 권리까지도 막는 방법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24) 참조: 토마스 H. 그롭, Will there be faith?: A new vision for educating and growing disciples, 조영관·김경이·임숙희 옮김, 『신앙은 지속될 수 있을까?: 그리스도교 신앙 교육의 새로운 비전』(서울: 가톨릭대학교출판부, 2014), 374-375쪽.

영국의 중등학교에서 현재 이루어지는 종교교육은 이러한 관점에 대해 좋은 사례가 되고 있다. 다문화·다종교적인 사회 안에서 학생들이 타종교를 존중하고, 영적·도덕적 발달을 통해 전인적인 인격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영국에서는 꽤 오래 전부터 공립학교들만이 아니라 모든 공립학교들도 종교교육을 의무 교과로 가르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영국 정부는 공립학교에서도 종교교육을 ‘종교학’으로서의 접근방식이 아니라, 각 지역이 가지는 환경적 특성과 철학에 따라, 또 각 학교가 가지는 교육 이념에 따라 한 가지 혹은 여러 방법을 혼용할 수 있도록 하여, 다양하고 융통성 있는 접근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²⁵⁾ 또 흥미로운 사실 중의 하나는, 1970년대 중반부터 1980년대 중·후반(1975-1987)까지 공립학교에서의 종교교육을 ‘종교학’만으로 해 오던 것을, 1988년부터는 영국의 전통 종교인 기독교를 중심으로 한 ‘종교적 교육’으로 전환시켰다는 점이다. 그렇게 전환시킨 가장 큰 이유는, ‘종교학’으로의 종교교육이 다양한 종교 현상을 객관적으로 이해하도록 돕고 타종교를 존중하고 개방성을 지니도록 한다는 장점을 가지지만, 영국이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던 기독교적 문화, 종교적 유산, 국가 정체성을 점차 잃어버리게 만든다는 우려와 종교교육 본래의 목적이라 할 수 있는 학생들의 영적 발달 및 종교적 신념과 가치를 내면화시키는 데 한계를 지닌다는 분명한 인식 때문이었다.²⁶⁾

가톨릭교회는 종교교육을 통한 타종교에 대한 존중과 종교 간의 대화를 장려하고 있지만, ‘자신의 종교적 정체성과 분리되지 않는 한’ 이라는 분명한 단서를 달고 있다. 왜냐하면 영국의 교육 당국이 우려한 것처럼, 종교학으로서의 종교교육은 종교에 대한 상대주의적 접근으로 인해 종교 무차별주의와 문화적 절충주의로 넘어가도록 만들고, 그로 인해 가톨릭 학교가 가지는 가톨릭 정체성을 점차 상실하도록 이끌 것이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말해, 중립학교들에서조차 ‘종교학’적 접근의 종교교육만을 실시하도록 강제해 놓은 우리나라의 2015 개정 종교학 교육과정은 학생들의 영적 발달 및 종교 가치의 내면화라는 종교교육이 갖고 있는 본질적 목적을 놓치고 있고, 가톨릭 학교가 추구하는 고유한 교육 이념 및 정체성 구현의 길을 막고 있으며, 가톨릭 종교교육을 받기를 원하는 학부모와 학생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 또한 다양성의 추구로서 교육부가 2015 교육과정 총론 ‘교과과정의 성격’에서 밝히고 있는 “국가 수준의 공통성과 지역, 학교, 개인 수준의 다양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교육과정”²⁷⁾이란 내용과도 부합하지 않는다. 따라서 개정 교육과정은 학생들의 영적 발달과 종교 가치의 내면화라는 종교교육의 본질적 차원을 고

25) 참조: 유재봉, 「영국의 종교교육: 학교에서의 종교교육의 가능성 탐색」 『교육과정연구』 제31집(한국교육과정학회, 2013), 207쪽.

26) 영국은 1988년 교육개혁법(Education Reform Act: ERA)을 통해 공립학교에서의 종교교육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필수 조건을 제시하였다: 첫째, 모든 학생은 ‘종교교육’을 받아야 한다. 둘째, 모든 학교는 매일 종교적 예배를 제공하여야 한다. 셋째, 종교는 대체적으로 기독교적 성격을 띠어야 한다. 참고: 위의 글, 205-207쪽.

27) 교육부,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교육부 고시 제2015-80호[별책 1], 2015. 9.).

려하고, 가톨릭 학교가 가지는 자율성과 특수성을 존중하며, 학생들의 종교의 자유(원하는 종교교육을 받을 권리와 원하지 않는 종교교육을 받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면서 종교교육의 다양한 접근을 장려하는 쪽으로 새롭게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2. 왜 ‘종교학’으로 성격을 규정한 종교 과목에 복수 과목 편성을 요구하는가?

교육부는 2015 교육과정 총론 제3장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관한 지침에서 “학교가 종교 과목을 개설할 때에는 종교 이외의 과목을 포함, 복수로 과목을 편성하여 학생에게 선택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학생의 학교 선택권이 허용되는 종립 학교의 경우 학생·학부모의 동의를 얻어 단수로 개설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²⁸⁾ 학교가 종교 과목을 개설할 때 종교 이외의 과목을 복수로 편성하여 학생들의 선택의 기회를 주도록한 지침은 종립학교의 종교교육이 정규 교과목에 편입되어 ‘자유선택과목’으로 지정된 제4차 고등학교 교육과정(1981-1987)에서부터였다. 교육부가 이 지침을 마련한 이유는 종립학교의 종교교육이 종파교육 중심으로 이루어지면서 그러한 종교교육을 받고 싶어 하지 않은 타종교 학생들의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취지에서였다. 그 이후로 제5차·제6차·제7차 교육과정과 2007년, 2009년 개정 교육과정을 거치면서 종교교육의 접근 방식은 점차 종립학교의 자율성은 제한하고 종교 일반에 대한 이해와 타종교에 대한 포용성을 강조하는 공교육의 강화 쪽으로 변화되어갔다. 더 나아가 2011년 개정 교육과정은 종립학교 뿐만 아니라 일반 공·사립학교들에서도 종교교육을 인문교양과목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종교학’으로 교과명을 바꾸었고, 마지막 7장에 종립학교를 배려하는 차원에서 개별 종교들에 대한 이해를 다루도록 하였지만, 그것도 종교학 일반의 내용을 심화하는 과정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²⁹⁾ 뒤이어 나온 2015 개정 교육과정도 2011 개정 교육과정의 방향을 그대로 따르고 있고, 종교교육의 성격과 교육 목표를 분명히 ‘종교학’의 입장에서 제시해 놓고 있다. 그런데 종교교육의 성격이 30여 년의 시간이 흐르면서 종립학교의 자율성과 특수성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공공성을 강조하는 차원으로, 종파교육에서 명백히 종교학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종교 과목 개설에 있어서 복수 과목 편성을 요구하고 있는 점은 상당한 논리적 모순으로 여겨진다.

종교 과목을 개설할 때에 별도로 복수 과목을 편성하도록 한 근본적 이유가 특정 종교에 편향된 종교교육을 받고 싶어 하지 않는 학생들의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한다면, 인문교양과목으로서 ‘종교학’을 개설하고 그것만을 종교 교과로 강제한 것이 시점에서는 별도 규정인 복수 과목 편성 지침은 폐지되어야 할 것이다. 반대로, 종교 과목에 대해 별도로 복수 과목을 편성하는 지침을 계속해서 유지하고자 한다면, 공공성을

28) 교육부,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교육부 고시 제2015-74호[별책 1], 2015. 9.), 34쪽.

29) 참조: 김귀성·류성민·고시용, 앞의 글, 81쪽.

담보한 종교학으로서의 종교교육을 강제할 것이 아니라, 각 학교들이 고유한 교육 이념에 따라 종교교육을 해 나갈 수 있는 자율성을 인정해 주어야 할 것이다. ‘종교학’으로서 종교교육의 성격을 강제하면서 동시에 별도의 복수 과목을 편성하도록 한 지침은 매우 합리적이지 못하다. 종교 교과 실행에 대한 이러한 비합리성은 중등학교에서 종교교육의 활성화가 아니라 종교교육의 위축을 가져올 것이다. 종립학교들은 종교학으로서의 종교교육과 복수 과목 편성이라는 이중적 제한에 대한 불만으로 종교 교과에 대한 선택을 꺼려하면서 다른 길을 모색할 것이고, 일반 공·사립학교들은 종교학을 선택하고 싶다 할지라도 별도의 복수 과목 설정에 따른 교원 증원, 추가적 재정 지출 문제로 인해 선택을 보류하게 될 것이다.

이와는 별도로, 학교 선택권을 갖지 못한 상태에서 종립학교에 입학하여 원하지 않는 종교 수업을 받아야 하는 학생들의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는 방법으로서 ‘별도의 복수 과목 개설’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인가라는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하다고 본다. 우리나라에서 종립학교의 종교교육에 대한 법적 근거는 헌법과 교육기본법인데, 헌법 제20조 1항은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종교교육을 행할 권리와 받을 권리, 그리고 받지 않을 권리의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고, 교육기본법 제25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립학교를 지원 육성하여야 하며, 사립학교의 다양하고 특성 있는 설립목적이 존중되도록 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통해 종교계 사립학교들이 그 설립목적에 따라 종교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또 존중받아야 함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고교 평준화 정책(1974)이 시행된 이래 학교의 ‘학생 선발권’과 학생들의 ‘학교 선택권’이 제한 받는 상황 속에서 종립학교가 가지는 ‘종교교육을 행할 자유’와 원하지 않은 종립학교에 배정된 학생들의 ‘신앙의 자유’ 사이에 충돌이 일어나게 되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정부가 채택한 방식이 바로 학교가 종교 과목을 개설할 때는 별도로 다른 과목을 복수로 개설해서 학생들이 자유롭게 원하는 과목을 선택하도록 한 것이었다.

하지만, 이 방식이 종립학교와 학생 모두를 만족시키는 최선의 방식이라 여겨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학생의 입장에서는 ‘신앙의 자유’를 충분히 보장받기에 전혀 문제가 없지만, 학교 입장에서는 별도의 과목을 개설하는데서 오는 여러 가지 부담을 가지게 되기 때문이다. 종립학교의 종교교육의 자유와 학생의 신앙의 자유가 충돌하는 이 경우에 있어서 최선의 방법은 “실제적 조화의 원칙에 의하여 충돌하는 기본권 모두가 본질적 내용에 대한 침해 없이 그 기능과 효력을 다할 수 있도록” 하는 길을 찾는 것이 되어야 한다.³⁰⁾ 실제적 조화의 원칙에서 여러 가지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커다란 정책의 변화 없이 추진할 수 있는 것이 종교교육에 있어서 영국이 취하고 있는 방식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30) 가톨릭 학교 법인 연합회, 『가톨릭 학교 관련 법제의 현황과 발전 방안』(서울: 가톨릭 문화원, 2007), 202쪽.

앞에서 밝힌 바와 같이, 영국은 공립학교에서도 종교교육을 의무 교과로 규정해 놓았는데, 그 성격도 ‘종교학’으로서의 종교교육이 아니라, 기독교적 가르침에 바탕을 둔 ‘종교적 교육’의 성격을 갖도록 하였다. 즉 예배는 전반적으로 기독교적 성격을 띠도록 하였고, 종교교육은 학생의 영적, 도덕적, 사회적, 문화적 측면을 향상시키는 것을 주요 목표로 설정하였다. 그런데 의무로 규정해 놓긴 했지만 종교교육을 원하지 않는 학생들의 신앙의 자유를 존중하여 학부모가 요청할 경우에는 예외가 허용되도록 하였다. 즉 학교 측에서 그 학교에 입학한 학생의 학부모에게 공문을 보내어 자녀가 학교에서 일련의 종교교육을 받을 예정인데 학부모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알리고, 만약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학교 측에서 종교교육을 대체할 수 있는 다른 프로그램을 제공하도록 하는 것이었다.³¹⁾

본 연구자는 이 방식이 별도의 복수 과목을 편성하도록 하는 것보다는 실제적 조화의 원칙에 근거하여 중립학교의 종교교육의 자유와 학생의 신앙의 자유 모두를 존중하면서 보다 효과적으로 종교교육을 실행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방식을 도입하게 될 때, 중립학교는 복수 과목 편성의 부담을 줄이면서 종교교육을 꺼리는 학생들을 대상으로만 다른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실행할 수 있을 것이고, 학생은 학부모의 도움을 받아 학교에서 제공하는 종교교육을 받을 것인지 말 것인지를 자유롭게 현명하게 선택할 수 있게 될 것이다.

3. 개정 교육과정은 학생들의 흥미와 수준을 고려하고 있는가?

개정 교육과정은 “종교와 연관된 지식과 경험, 그리고 생활 등을 토대로 종교와 인간에 관해 스스로 성찰할 수 있는 안목과 태도를 기르는 것”을 총괄 목표로 제시하면서 여섯 가지 세부적인 교육 목표와 내용 체계 및 성취기준을 밝히고 있다. 그런데 그 여섯 가지 교육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제시되어진 교육 내용이 과다하다고 여겨진다. 개정 교육과정은 종교 과목에서 가르쳐야 할 여섯 가지 영역과 교육 내용 및 성취 기준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고 있다.

<표 7> 종교학 과목의 여섯 가지 영역 및 성취기준

영역	성취기준
1 인간과 종교	• 다양한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서의 종교를 이해한다. • 인간이 종교를 통해 여러 의미를 얻어 인격을 형성하고 삶을 변화시키는 과정을 이해한다. • 종교의 다양한 정의를 통해 종교의 역할을 이해한다. • 종교의 자유권이 현대 사회의 기본권 중의 하나임을 이해한다.

31) 참조: 안신, 「영국 종교교육의 특징과 한계: 이론과 방법의 새로운 흐름을 중심으로」 『종교문화연구』제 20호(한신대학교 종교와문화연구소, 2013), 74쪽.

	• 정교일치 또는 정교분리, 교육과 종교의 분리가 제도적으로 종교의 자유와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를 이해한다. • 종교의 여러 통념을 종교의 자유 위축이라는 관점에서 이해한다.
2 종교의 구성	• 사서삼경, 불경, 도덕경, 성경, 쿠란 등 경전의 형성 과정과 주요 내용을 이해한다. • 현재 진단과 미래 지향의 틀을 활용하여 종교의 핵심 교리를 이해한다. • 제사, 법회, 미사, 예배, 굿 같은 종교 의례의 진행 과정과 의미를 이해한다. • 통과 의례, 치병 의례, 계절 의례, 수련 의례 등의 특성을 이해한다. • 주술과 축제, 일상적 종교 활동(기도, 연등 행사, 제사 등)과 가치관의 특성을 이해한다. • 가족, 승가(상가), 교회(에클레시아), 움마, 단골 등의 개념과 특성을 이해한다. • 성직자, 수행자(수도자), 일반 신도의 역할 구분과 상호 관계를 이해한다. • 종교 공동체의 다양한 책무를 이해한다.
3 종교의 세계관	• 고통, 선과 악, 삶과 죽음, 운명과 자유 등 인생의 근본 문제를 이해한다. • 인간 존재에 대한 여러 종교의 견해를 이해한다. • 종교적 인간관이 역사적 과정 속에서 어떻게 종합되고 체계화되는지를 이해한다. • 여러 종교의 역사관, 종말론, 우주관과 그 특징을 이해한다. • 여러 종교의 생사관과 구원관 및 그 특징을 이해한다. • 여러 종교의 자연관과 그 특징을 이해한다. • 여러 종교의 생명관과 그 특징을 이해한다.
4 종교 전통과 문화유산	• 유교, 불교, 도교, 힌두교 등의 역사적 흐름과 특징을 이해한다. • 그리스도교(천주교, 정교회, 개신교 등)와 이슬람교(수니파, 시아파, 수피즘 등), 유대교 등의 역사적 흐름과 특징, 그리고 문화적 유사성과 차이를 이해한다. • 하늘 신앙, 무속 신앙, 풍수신앙, 조상 숭배 등 고유 종교의 특성과 현대적 의의를 이해한다. • 유교와 도교의 한국사적 흐름과 특성, 그리고 현대적 의의를 이해한다. • 불교의 한국사적 흐름과 특성, 그리고 현대적 의의를 이해한다. • 그리스도교의 한국사적 흐름과 특성, 그리고 현대적 의의를 이해한다. • 신종교(동학-천도교, 대종교, 대순진리회, 원불교 등)와 이슬람교의 한국사적 흐름과 특성, 그리고 현대적 의의를 이해한다. • 세계 종교가 남긴 다양한 문화유산의 유형과 특징을 이해한다. • 한국 종교가 남긴 다양한 문화유산의 유형과 특징을 이해한다.
5 현대사회와 종교	• 종교의 차이와 종교로 인한 차별의 구분을 이해한다. • 다종교 사회에서 상호 공존을 위해 종교 차별 금지, 종교 간 평등 등의 필요성과 함께, 종교 간 대화의 필요성과 방식을 이해한다. • 인권 감수성의 관점에서 여러 종교의 현실을 이해한다. • 생명과 생태계 문제에 대한 종교적·과학적 접근의 차이를 이해한다. • 다문화 사회에서 종교에 요청되는 역할을 이해한다. • 다문화 감수성의 관점에서 다문화 사회의 종교 현실을 이해한다.
6 개별 종교들의 이해	• 개별 종교의 주요 교리와 실천 규범을 이해한다. • 개별 종교의 주요 교리와 실천 규범에 담긴 여러 시사점을 이해한다. • 개별 종교의 사회적·문화적 실천의 내용(시민운동, 복지, 언론, 민간 외교, 교육, 문화 예술 등)과 영향을 이해한다. • 개별 종교가 지향하는 미래의 사회적·문화적 실천이 우리 사회에 미칠 여러 영향을 이해한다. • 종교인의 삶과 이야기를 통해 자신과 타인의 삶, 사회, 이웃 종교 등에 대한 윤리적 태도를 이해한다.

종교학의 차원에서 종교 전반의 주요 주제들과 세계 종교와 한국 종교의 중요한 내용들을 공평하게 다루어야 한다는 점을 십분 이해한다 할지라도 너무 많은 주제와 내용을 종교 수업을 통해 가르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분량의 교육 내용은 가르치는 교사나 학생 모두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고, 학생들이 종교 수업에 흥미를 느끼면서 종교 문제에 진지하게 다가가 비판적으로 성찰하는 시간을 갖도록 이끌지도 못할 것이며, 제시된 여섯 가지 교육 목표를 모두 성취하는 가운데 진정한 배움의 즐거움을 느끼기에도 분명한 한계가 있으리라고 여겨진다. 교육부는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대한 보도 자료를 통해 새로운 교육과정은, “적은 양을 깊이 있게 가르쳐 학습의 전이를 높이고 심층적인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교과교육에 대한 국제적 경향에 발맞추어, “교과별로 꼭 배워야 할 핵심 개념과 원리 중심으로 학습내용을 정선하여 감축하고, ... 학생들의 학습 부담을 줄이고 진정한 배움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³²⁾ 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취지가 종교학 과목에 있어서는 분명 그렇지 못한 것 같다.

V. 결론

가톨릭 학교는 가톨릭교회의 교육기관으로서 그리스도의 복음 정신에 기초에 분명한 교육 이념과 교육적 사명을 가지고 있다. 가톨릭 학교가 추구하는 교육적 사명이란 교육을 통한 복음화와 전인적인 인간의 형성이다. 그리고 가톨릭 학교가 가지는 이 두 가지 본질적 사명을 가장 잘 수행할 수 있는 길이 바로 종교교육을 통해서라고 믿고 있다. 이것이 가톨릭 학교의 확고한 정체성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교교육의 공공성과 학생들의 종교의 자유를 이유로 가톨릭 학교에서 종교교육을 ‘종교학’으로 가르치라고 종용하는 것은 가톨릭 학교로서의 정체성을 내려 놓으라는 말로 받아들이게 된다.

교육 당국이 지향하는 종교학으로서의 종교교육은, 앞에서 여러 번 밝힌 바와 같이, 종립학교가 아니라 공립학교에서 이루어져야 할 접근 방식이고, 그 교육적인 성과도 매우 제한적이다. 다문화·다종교 사회 안에서 건전한 시민 의식을 가지고 조화롭게 살아가기 위해 종교에 대한 객관적 이해, 비판적 성찰, 타종교에 대한 개방성과 존중감을 키울 수 있는 종교교육이 필요하기도 하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인간의 타고난 영적 본성과 종교적 심성을 성장시키기 위해, 또 종교들이 가지는 보편적인 가치들로부터 영적 지혜를 얻도록 하기 위해, 그럼으로써 전인적인 인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종교교육을 필요로 하는 것이다. 영적 본성을 성장시켜 원만한 전인적인 인격을 형성하게 될 때, 타종교에 대한 개방성과 존중이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된다. 왜냐하면 타종교에 대한 개방성과

32) 교육부, 『‘2015 개정 교육과정 총론 및 각론 확정·발표’ 보도자료』(2015. 9. 23), 4쪽.

존중은 보편적인 종교적 가치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종교학으로서의 종교교육만을 단일한 종교교육 방식으로 고집할 것이 아니라, 공립학교에서는 종교학 혹은 종교적 교육의 혼합 방식으로, 종립학교에서는 종립학교의 종교교육의 자유와 학생의 신앙의 자유를 존중하는 실제적 조화의 원칙을 바탕으로 일방적인 종파교육에서 벗어나 종교적 교육과 혼합하는 방식으로 종교교육이 이루어지도록 유도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해 보인다.

가톨릭 중등학교에 대해 계속해서 ‘종교학’으로서의 종교교육을 강제하는 것은, 비유를 들자면, 왼손잡이에게 오른손을 사용해야 한다고 강요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왼손잡이가 하는 것을 오른손잡이가 바라볼 때는 다소 어색해 보이겠지만 왼손잡이는 왼손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편안하고 또 오른손잡이 못지않은 결과를, 또 어떤 때는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낸다. 왼손잡이에게 오른손으로 일을 하도록 강요한다면, 얼마나 하기 싫고, 하는 일도 어색하고, 그 결과도 별 볼일 없겠는가. 가톨릭 학교에서 종교교육 시간에 종교학을 가르치라는 것은 잘 할 수 있는 자연스런 길을 버리고, 잘 할 수 없는 어색한 방법을 택 하라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가톨릭 학교는 가톨릭적인 종교교육을 통해 그리스도교의 복음 정신에 기초하여 학생들의 영적 발달, 도덕성·인성 발달, 종교심 함양, 생명 존중, 타종교에 대한 개방성과 존중감 등 많은 긍정적인 교육적 결과들을 만들어왔다. 또한 가톨릭 학교는 ‘신앙은 강요를 용인하지 않는다.’는 교회의 가르침에 근거하여 타종교를 믿는 학생들을 최대한 배려하고 있고, 그것은 종교교육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가톨릭 학교는 가톨릭적인 종교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고, 또 교육 당국이 종교학을 통해 얻고자 하는 교육 목표보다 더 결실이 풍부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본다.

우리가 다문화·다종교를 인정하고 그 안에서 조화롭게 살아가야 하는 것처럼, 종교교육을 시행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든다. 교육의 공공성을 이유로 교육의 획일화를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가지는 신앙의 자유를 보장하는 길을 계속해서 모색하는 가운데 각 종립학교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교육 이념과 교육적 사명을 존중하면서 학생들의 영적 발달, 종교심 함양, 도덕성·인성 발달, 생명 존중, 타종교에 대한 개방성과 존중감 등의 보편적인 교육 가치를 구현하는 다양한 종교교육의 길을 제시하는 것이 교육 당국이 추구해야 할 이 시대의 교육정신이라고 여겨진다.

참고문헌

- 가톨릭 학교 법인 연합회. 『가톨릭 학교 관련 법제의 현황과 발전 방안』. 서울: 가톨릭 문화원. 2007.
- 강돈구 · 윤용복 · 조현범 · 고병철. 『종교교육의 현황과 개선방안』. 문화관광부&한국학중앙연구원. 2005.
- 김귀성 · 류성민 · 고시용. 『종교 교양교육 활성화 방안 연구』. 문화체육관광부. 2012.
- 교육부.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교육부 고시 제2015-74호[별책 1]). 2015. 9.
- _____.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교육부 고시 제2015-80호[별책 1]). 2015. 9.
- _____.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교육부 고시 제2015-74호[별책 19]). 2015. 9.
- _____. 『‘2015 개정 교육과정 총론 및 각론 확정·발표’ 보도자료』. 2015. 9. 23.
- 교황청 가톨릭교육성. 「가톨릭 학교에 관한 지침」 『사목』제57호(서울: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1978).
- _____. 「학교내의 가톨릭 평신도: 신앙의 증인들」 『사목』제88-90호(서울: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1983).
- _____. 「제삼천년기의 문턱에 서 있는 가톨릭 학교」 『가톨릭교회의 가르침』 제13호(2000).
- _____. 『종교 교육과 학교 선택권에 관한 회람』. 서울: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09.
- _____. 『가톨릭 학교의 문화 간 대화 교육: 사랑의 문명을 위한 조화로운 삶』. 서울: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13.
- 바오로 6세. 『현대의 복음 선교』, 서울: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07.
- 안신. 「영국 종교교육의 특징과 한계: 이론과 방법의 새로운 흐름을 중심으로」 『종교문화연구』제20호(한신대학교 종교와문화연구소. 2013).
- 유재봉. 「영국의 종교교육: 학교에서의 종교교육의 가능성 탐색」 『교육과정연구』제31집(한국교육과정학회. 2013).
- 제2차 바티칸 공의회. 「그리스도인 교육에 관한 선언」.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문헌』(개정판). 서울: 한국천주교주교회의. 2013.
- 토마스 H. 그룸, Will there be faith?: A new vision for educating and growing disciples, 조영관 · 김경이 · 임숙희 옮김. 『신앙은 지속될 수 있을까?: 그리스도교 신앙 교육의 새로운 비전』. 서울: 가톨릭대학교출판부. 2014.
- 한국천주교주교회의 교육위원회. 『한국 가톨릭 학교교육 지침서』. 서울: 가톨릭문화원. 2009.

원고접수일: 2016년 5월 30일 심사일: 2016년 6월 28일 게재확정일: 2016년 7월 2일

연구자소개: 조영관

① 전공: 교육행정 및 정책 / 소속: 가톨릭대학교 성신교정 교육학과 교수

② 관심영역: 가톨릭 학교교육, 교사교육, 종교교육, 청소년 신앙교육

③ 주요논저: 『한국 가톨릭 학교교육의 역사』, 『가톨릭학교 교사의 신앙·현신·가톨릭교육에 대한 인식 조사 연구』, 『가톨릭 교사의 신앙과 가톨릭 학교 복음화와의 관련성』,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문헌 안에 나타난 가톨릭교회의 교육에 관한 관점』 등

④ E-mail: choeric@hanmail.net

Abstract

2015 Revised Curriculum in Religious Studies and Religious Education in the Catholic Secondary School

Cho, Young Kwan

Catholic University

This paper aims to raise a question critically and propose improvement plans regarding the ‘2015 Revised Curriculum in Religious Studies’ from a perspective on religious education of which Catholic schools in Korea are in pursuit. The Catholic school as a educational institution of the Catholic Church has clear educational philosophy and mission of ‘evangelization through education’ and ‘holistic human formation’ based on the Gospel of Christ. And Catholic schools have firm beliefs that these two fundamental educational mission can be best achieved through religious education in the school. Catholic secondary schools in Korea, through religious education based on Christianity, have brought positive educational outcomes such as students’ spiritual development, morality and personality development, cultivation of the religious sense, respect for life, and openness and respect for other religions. Also, Catholic secondary schools are considerate of students who believe in other religion on the basis of the Church’s teaching that “Faith is a free response of the human person to God.” However, ‘2015 Revised Curriculum in Religious Studies’, with the rationale that religious schools including Catholic schools should consider other religions in multi-religious societies and keep publicness on religious education, disregards the distinctness and uniqueness of religious education that religious schools pursue and forces to teach religious studies only in religion education even in religious schools. As such, this paper raises three critical questions regarding ‘2015 Revised Curriculum in Religious Studies’ and proposes alternatives. The questions are as follows: 1) Why should the subject name of religious education in the religious school be called as ‘religious studies’?, 2) Why does it require to offer other courses for students who do not want to take it even though religious education has been stipulated as ‘religious studies’? 3) Has it considered the interests and education

levels of students? In conclusion, this paper argues that ‘2015 Revised Curriculum in Religious Studies’ and religious education as religious studies with which the Ministry of Education has pushed ahead should be done in public schools, not in religious schools including Catholic school and its educational outcomes will be very limited. And this paper suggests that the Ministry of Education should continuously explore ways to ensure freedom of religious beliefs that all students have and, at the same time, respect the unique educational philosophy and mission that religious schools have. Also, this paper emphasizes that it is the educational spirit in this day and age that the Ministry of Education should propose various ways of religious education that enables students to develop spirituality, morality, personality, cultivation of religious sense, and respect for life, with openness and respect for other religions.

Key words: 2015 Revised Curriculum in Religious Studies, religious education in the Catholic school, educational philosophy and mission in the Catholic school, various ways of religious education, the purpose(aim) of religious education